

#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인공지능 탐구활동 기대”

### 광주과학관, 호남권 초·중·고 10곳 80여명 참석 인공지능 연구기관 탐방·탐구활동 동아리 발대식 전문가 멘토링·활동비 등 맞춤 지원 본격 시작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최근 본관 1층 상상홀에서 '2026년 인공지능 탐구활동 동아리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자원사업에 선정된 광주·전남·전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10개 동아리(초등 2팀, 중등 3팀, 고등 5팀) 소속 지도교사와 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활동중 수여를 시작으로 기관장 환영 인사, 과학관 및 세부 활동 계획 소개, 질의응답,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이후에는 본관, 어린이과학관, 인공지능관과 사전특별전 '인생사

연구소' 등을 자율 관라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올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아리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본격적인 탐구활동을 이어간다. 국립광주과학관은 탐구활동비와 최신 인공지능(AI) 플랫폼 구독료, 전문가 멘토링, 인공지능 연구기관 견학 프로그램인 '인공지능 탐사대', 각종 인공지능 과학문화행사 우선 참여 기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활동 결과를 현장에서 시연하고 국민 대상 탐구성과를 소개하는 성과발표회가 열릴 예정이다. 우수 활동팀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비롯해 광주시교육감상, 국립광주과학관장상 등이 수여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본관 1층 상상홀에서 '2026년 인공지능 탐구활동 동아리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공지능 탐구활동 담당자인 과학문화실 김현승 선임연구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인공지능 탐구활동을 통해 기초 소

양을 기르고 진로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함평군, 주민 건강 지키는 왕진버스 ‘호응’ 양·한방 협진...근골격·시력 검사도

함평군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함평읍 전천후계이트볼장에서 농업인과 고령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평군, 농협중앙회 공동으로 주최하고 함평농협이 주관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지리적 여건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각 분야 전문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도 더해졌다.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 병원은 양·한방 협진과 영양수액 처방을 진행했으며, 함평군 보건소는 치매 조기

예방을 위한 방문 검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스포츠재활연구소(㈜피치오)는 근골격계 맞춤 운동을 처방했으며, 누리안옵틱스는 정밀 시력 검진과 돋보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기에 농업인들이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양백과 한방 상비약(소화제, 파스) 등을 함께 배부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핵심 창구”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농업인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원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함평군은 최근 함평읍 전천후계이트볼장에서 농업인과 고령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사진제공=함평군청

##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

### 영광서 실버카 안전장치 보급...맞춤형 교육 병행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영광군 대마행정복지센터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번 교통사고 예방활동은 영광군과 영광경찰서에 참여했으며, 앞서 장흥군과 보성군에 이어 진행됐다. 전남은 고령 인구 비중이 26.7%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2024년 기준 64.9%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영광 지역의 경우 교통사고 100%가 고령자에서 나타나는 등 고령층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현장에서 실버카 이용 고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뒷바퀴 조명등을 설치하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했다. 교육은 △안전한 보행 수칙 △야간 교통사고 예방법 △실버카 안전 사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고령자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이와 함께 아광지팡이, LED 생광볼, 야광 반사 키링 등 야간 보행 안전용품도 배부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임영진 기자 look8@gwangnam.co.kr  
영광·정규팔 기자 ykjg98@gwangnam.co.kr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영광군 대마행정복지센터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 장흥군민의 날, 세대 화합의 장 마련

장흥군은 최근 군민회관에서 기관·사회단체장과 향우, 군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장흥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은 격년제 운영에 따라 내실 있는 실례 행사로 진행됐으며, 기존 군민의 날(5월 1일)이 노동절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하루 앞당겨 개최됐다. 행사는 장흥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길이 흥하라, 장흥’을 주제로 한 분행사가 이어졌다.

공예대후와 백광홍 등 장흥의 역사적 인물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 형식의 공연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자긍심을 안겼다. 특히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장흥’을 강조하기 위해 장흥청년회의소 회장이 군민회장을 낭독하며 세대 간 소통과 미래

###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장흥’ 강조 공연·퍼포먼스로 군민 화합 다져



장흥군은 최근 군민회관에서 ‘제56회 장흥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장흥군청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군민 화합 퍼포먼스’에서는 읍·면민회장과 청년대표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장흥의 미래를 공유

하며 세대 간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군민의 노래’를 제창하며 군민이 함께 만드는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장흥·정규팔 기자 jms05031@

## 게시판

**알림** ▲일기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 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망마무름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motto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뜰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 국지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운세 (음력 3월 20일)

48년생 지체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조치하라  
60년생 생각 못했던 기쁜 소식이 들려 온다  
72년생 기쁨 마음으로 잠깐 기다려 보라  
84년생 과욕은 금물 적당히 잡아라  
96년생 공부·이성 교제 모두 원만하지 못할 운  
51년생 때로는 양보를 하는 것도 길하다  
63년생 투자를 삼가고 현상유지에 신경쓰라  
75년생 뉘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87년생 도모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될 것  
99년생 큰 욕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54년생 감정이 앞서면 주변과 마찰이 생긴다  
66년생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기회다  
78년생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90년생 분수 지켜 무기력한 자신 돌아보라  
57년생 자녀 문제가 우연히 해결될 것이다  
69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다  
81년생 혼자 감당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93년생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들어오게 될 것

49년생 확연한 차이가 있으니 논여겨 보라  
61년생 얻으려 하지만 얻는 것이 없다  
73년생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85년생 바라던 일이 일시천리로 추진된다  
97년생 노고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52년생 확실하게 귀하의 의사를 밝혀라  
64년생 아래사람과 의논하면 큰 도움이 될 것  
76년생 남 말 믿지 말고 자기 판단으로 행하라  
88년생 틈을 때우지 않으면 이탈될 수 있다  
55년생 강한 고집은 옳다  
67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전환하라  
79년생 겸손한 자세라면 성공을 거둔다  
91년생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58년생 술바라 내서면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70년생 술과 바비 생기는 좋은 시기  
82년생 외출하면 귀인을 만나 수 있다  
94년생 몸 상할 우려있으니 후배와 다투지 마라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작명**  
50년생 고집스러운 생각 조심하라  
62년생 큰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라  
74년생 뜻하지 않은 돈이 생긴다  
86년생 형제 친구의 일로 예민해지는 날  
98년생 영귀함이 따르는 행운이 있다  
53년생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65년생 재물보다는 가족을 더 중시하라  
77년생 풀리지 않고 문제만 쌓이는 날  
89년생 친구들 만나 웃음꽃 피우고 바쁜 날  
56년생 지나치면 안 될 것이다  
68년생 헛되게 애만 쓰고 보람 없는 날  
80년생 다투면 손해. 양보하면 득이 된다  
92년생 지인의 주식투자 권해도 용하지 마라  
59년생 답답지 않은 사람이나 소식이 올 것  
71년생 약간 모험적인 투자도 성공을 거둔다  
83년생 중요한 일이 논의 되니 놓치지 마라  
95년생 배우자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지 마라